

#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 6-7페이지에 나오는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을 꼭 숙지해주세요.

—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 :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도록 도전한다.



##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15분)

오늘의 말씀 :

전도서 1 : 1~11

찬송 : 435장 (통 492, 나의 영원하신 기업)

기도 : 인도자 혹은 자원자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마음 열기 :

“이것이 행복이야!”라고 외쳤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듣기 1 : 본문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 봅시다.

배경설명 및 도움말 :

인도자가 읽거나 혹은 미리 숙지해 온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참가자들이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해줍니다.

배경설명 :

Kingdom  
Life



전도서는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절대 허무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허무함을 강조하다보니 본서의 분위기가 우울하고, 어떤 내용은 성경의 다른 내용과 배치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저자인 전도자 솔로몬은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솔로몬이 말하려 하는 것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떠나 해 아래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든 행사들이 허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전도서가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 전도서의 결론인 12:13-14은 전도서 전체를 해석하는 중요한 해석의 열쇠이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본문은 전도서 서론 부분으로서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에 대해 총론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도움말 :**

- 전도자(1절, 히 : קהלת 코헬레트) : ‘선생,’ ‘혹은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솔로몬을 가리킨다(12 : 9 참조).
- 헛되다(2절, 히 : הבל 헤벨) : 수증기 또는 바람(잠 21 : 6, 사 57 : 13)이라는 어원을 지니고 있으며, 이 단어는 전도서 전체에서 35번이나 사용되었다. 마치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 덧 없는 것, 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 해 아래서(3절, 히 : תחת הארץ 타하트 하사메스) : ‘하늘 아래서’와 ‘천하’라는 표현과 더불어 인간의 삶이 허무함을 기술하기 위한 공간적 배경으로서 전도서 전체에서 29번 사용되었다. ‘해 아래서’는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인간의 삶의 영역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세대에 적용된다.
- 가고(4절, 히 : הלך, 홀레크), 오되(4절, 히 : בא, 바), 있다(4절, 히 : עמד 오바데트) : 이 단어들은 모두 분사로서 행동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말씀 듣기 2 :**

한 사람이 다시 본문을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전도자가 헛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주의하면서 경청합시다.



**말씀 깨닫기(30분)**

**1. 전도서를 시작하는 전도자의 첫 말씀은 무엇입니까?(1-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헛되다는 말을 다섯 번이나 반복하면서 전도서를 시작한다.

▶ 전도자는 무엇이 헛되다고 말하며, 이 표현을 왜 다섯 번에 걸쳐 반복했을까요?(배경 설명과 도움말 참조)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한다. 참고로, ‘헛되다’라는 말은 ‘수증기’, ‘입김’, 또는 ‘바람’과 같이 잡을 수 없는 것으로서 곧 사라지고 마는 것을 의미한다. 전도자가 이 말을 다섯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허무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즉, 어느 것 하나 헛되지 않은 것 없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이다.

참고 사항 : 욱기의 주제는 고난, 시편의 주제는 기도와 찬송, 잠언은 지혜, 아가서는 사랑이라면,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다.

▶ 자기 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언제 그리고 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2.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한 후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까?(3절)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한다.

▶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도움말 참조)

해 위에 혹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채로 이 땅에서 행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를 의미한다.

참고 사항 : 3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한 다른 말씀들, 즉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잠 14 : 23), 그리고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잠 12 : 24)와 같은 말씀들과 서로 상충되어 보인다. 하지만 잠언의 말씀과 전도서의 말씀은 전제가 다르다. 잠언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잠 1 : 7)라는 대 전제 하에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도서의 수고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현재 보이는 세상에서 수고하는 자들의 헛됨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말씀은 서로 상충되기 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복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허무함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수고가 수증기와 입김과 같이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생각해 보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다 : 구원, 은혜, 믿음, 성령,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으나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다.

참고 사항 : 릭 워렌 목사는 그의 저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들에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한한 삶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는 유한한 인생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솔로몬의 주장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들은 모두 헛되다는 것이다.

### 3. 솔로몬은 해 아래 모든 것의 절대 허무를 말하다가 자연 현상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관찰한 자연 현상의 대표적인 것들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것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4-7절)

땅(4절), 해(5절), 바람(6절), 강물(7절).

#### ▶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서 왜 이런 자연현상을 언급하고 있을까요?(도움말 참조)

해 아래에서 하는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땅’은 영원히 있음으로 인해 인생의 유한함(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을 돋보이게 한다. ‘해’는 다람쥐 쳃바퀴 돌듯이 반복해서 떴다가 졌다 하고, ‘바람’은 반복해서 이리 불고 저리 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며, ‘강물’은 끝없이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는 채워지지 않는다. 이처럼 전도자는 자연 현상의 움직임을 무의미한 반복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기술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와 같이 헛되다는 것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참고 : 땅과 해와 바람과 강물과 같은 자연 현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것들은 무의미한 움직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시 19 : 1-3, 롬 1 : 20-21, 골 1 : 16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러한 자연현상을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현상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해 아래 살고 있는 자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은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자연 현상의 궁극적 목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무의미한 반복처럼 보일 뿐이다.

▶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4. 해 아래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말했던 솔로몬은 이제 해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새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9-10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도자는 새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들도 이미 오래 전 세대들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한다. 즉, 해 아래에서 진행되는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에 새 것이 없다는 것이다.

▶ ‘새 언약’(렘 31 : 31)과 ‘새 일’(사 43 : 19)과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 것에 대해 가르쳐 주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솔로몬의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시대마다 다른 문화 속에 새롭고 독특한 문화와 과학 발달의 산물이 생겨난다. 우리가 누리는 현대 문명의 이기들은 과학 문명이 발전되기 이전에는 없었던 것들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 아래’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해 아래’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 혹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을 의미한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죄의 역사의 반복일 뿐이다. 해 아래에는 헛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 어떻게 하면 해 아래에서 진행되는 허무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해 위 혹은 하늘 위에 계시며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해 아래서의 반복적인 죄의 싸이클이 깨어지고 수직적인 신령한 은혜가 주입될 것이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은 해 위에 계셔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전도자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다.



### 말씀 따라 살기(15분)

\*인도자는 참가자용에 나오는 두 개의 질문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식의 질문을 먼저 하라 :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

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자들은 1번(개인 적용) 질문을 건너뛰어도 될 것이다.

1. 새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허무한 해 아래로부터 해 위로 올라가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위해 내가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 가지씩 생각해 보고 한 주간 실천해 봅시다.

예 :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내 삶의 최고 목표를 점점하며 살기,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기, 매일 아침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

2.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교회의 젊은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인생 교훈을 각자 한 가지씩 기록하여 한 장에 모아 그들에게 나누어 줍시다.

우리가 전도자는 아니지만 인생의 선배로 또는 부모로써 우리가 겪은 인생의 시행 착오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예를 들어, 여섯 명이 한 그룹이면 여섯 개의 교훈이 될 것이다), 그 교훈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들에게 조그마한 디딤돌이 되게 하자.